



## 영국의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원인

김미화 연구원

최근 영국의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.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는 치매 및 알츠하이머로 인한 고령 사망자 수 증가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. 연구에서는 특히 2010년 이후 지속된 재정 긴축 기조가 고령자가 받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쳐 고령자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대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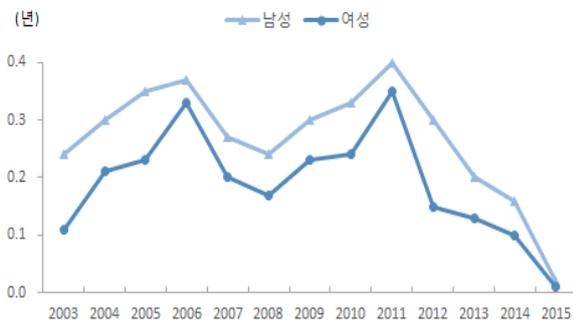
- 최근 연구<sup>1)</sup>에 따르면, 영국의 기대수명은 2010년 이후 증가세가 약 50% 감소하는 등 거의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(그림 1) 참조
  - 2000~2015년 동안 여성의 기대수명은 5년마다 1년, 남성은 3.5년마다 1년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, 2010년 이후에는 여성의 경우 10년마다 1년씩 증가하고 남성은 6년마다 1년씩 증가하고 있음
  - 특히, 65세 이상 고령자의 기대여명<sup>2)</sup>은 2000~2015년 동안 여성의 경우 6년마다 1년씩 증가하고 남성은 5년마다 1년씩 연장되었으나, 2010년 이후에는 여성은 16년마다 1년, 남성은 9년에 1년씩 증가하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
- 연구에서는 치매 및 알츠하이머로 인한 고령 사망자 수 증가를 기대수명 정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(그림 2) 참조
  - 2002~2015년 사이 85세 이상 여성의 치매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5% 증가하였고, 남성의 경우 250% 증가하였음<sup>3)</sup>

1) Institute of Health Equity(2017), Marmot Indicators Briefing

2) 기대수명은 0세의 기대여명으로 출생아의 평균수명을 뜻하고, 기대여명은 특정연령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기대되는 잔여생존 연수를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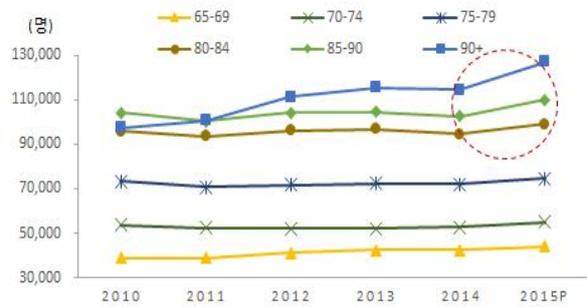
- 치매와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전체 사망자 중 치매와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11.6%로 모든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<sup>4)</sup>
- 연령별로는 특히 80세 이상(37,252명)의 여성과 85세 이상(12,258명)의 남성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임<sup>5)</sup>
- 치매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는 치매에 취약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진단율이 개선됨에 따라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한 것에서도 기인하는 바가 있음

〈그림 1〉 기대수명 증가 추이



자료: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

〈그림 2〉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 수 추이



자료: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

■ 특히, 2010년 이후 영국정부가 유지해 온 재정 긴축 기조가 고령자가 받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쳐 고령자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대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<sup>6)</sup>

-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(NHS:National Health Service) 예산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연평균 약 3.8%의 증가율을 보였으나,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.1% 증가에 그침
  - NHS는 2015/16년 약 25억 파운드에 달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함
- 2009~2015년 동안 영국의 1인당 실질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거의 0%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<sup>7)</sup>
  - 2015년 영국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은 9.8%로 EU 국가 평균(9.9%)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며, 프랑스(11.0%), 스웨덴(11.1%), 독일(11.1%)에 비해 낮은 수준임 **kiqi**

3) 2015년 영국의 사망자 수는 529,655명으로 전년에 비해 5.6% 증가한 가운데, 여성 사망자의 3/4은 75세 이상이며, 이 중 2/3는 8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. 또한 남성의 경우, 사망자의 3/5가 75세 이상이며, 그 중 절반이 85세 이상임  
 4) 2011~2014년 동안 주요 사망원인 1위는 허혈성심장질환이었음  
 5) 잉글랜드와 웨일즈 기준  
 6) 보고서에서는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 교육, 고용, 노동 조건 및 빈곤 등을 들고 있음  
 7) OECD(2016), Health at a Glance: Europe 2016